

## 현대 패션에 표현된 오컬티즘

윤 예 진 · 임 은 혁\*\*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부교수\*\*

### Occultism in Contemporary Fashion

Yejin Yoon · Eunhyuk Yim\*\*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13. 6. 21. 접수; 2013. 8. 20. 수정; 2013. 8. 23. 채택)

Features of the Occult Culture is preferred that powers, demons, magic, magical, unreal etc. Currently Occultism is getting a lot of attention to the public in the society, culture, arts and the play. Fashion in the period that includes all circumstances is a field. Thus, the current Occultism and modern fashion will also be related.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figure out the form and meaning of Occultism in Contemporary Fashion. An example of the best of contemporary trends is the mass media, For this reason, Occultism symptoms range of case studies mess media(television programs and film). Research on contemporary fashion range was used 2000-2013 fashion collection extracted from the data.

Represented in the mess media features of occultism is 'Witchcraft and Sorcery' and 'Death and Horror'. They are story of wizard exorcism and unnatural horror. In the 21st century, modern people are enjoying occultism, and occultism is the one of the entertainment.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features of occultism is 'Super-human organism', that is out of the human body, ignoring body shape and type of transformed organism. Second distinction is 'Ghost', they are something like the dark and dismal, shape of ghosts and look pale. Third distinction is 'Neo-Macabre', it is the shape of the skeleton. Skeleton symbolizing the end of life, skeleton to express Occultism has emerg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motifs in the 21st century fashion.

Occultism expressed in fashion is a gothic fantasy, because the fashion can be expressed. In addition, people in modern society wants to be against the norms and taboos. The trend Occult-culture is a symbol of the public's desires and needs.

*Key Words:* Occultism(오컬티즘), Occult-culture(오컬트 문화), Super-human organism(초인류적 유기체), Ghost(유령), Neo-macabre(네오 마카브레)

## I. 서론

문화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학습하고 축적해온 결과로서 타인들로부터

터 배운 것, 대대로 전해 내려온 학습행동, 인간 집단의 배경을 이루는 전통을 비롯한 전반적인 복합체를 뜻한다(이전숙 외, 2003). 또한 지식, 신앙, 도덕 관습 등의 생활양식의 총체와 인간

---

Corresponding author ; Eunhyuk Yim

Tel. +82-2-760-0517, Fax, +82-2-760-0518

E-mail : ehyim@skku.edu

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적 형태, 공유하는 생각이나 느낌, 행동의 방식, 신념 등을 포함한다. 근대 사회에서 문화의 의미는 인간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이루어진 지식, 정신적 심미적 활동과 보통 지식층 중심의 고급예술, 학문, 과학 등을 주로 의미해 왔으나, 오늘날 21세기는 인터넷 통신망 등을 통하여 접할 기회가 더욱 넓어진 이색적인 문화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하나의 유행 문화 현상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21세기는 과거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 예술적으로 다양한 현상과 유행이 동시대에 함께 등장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오컬트 문화(Occult-culture)’는 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오컬트 문화의 특징은 초능력, 악마, 마법, 주술 같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기 못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하기 힘들고 많은 부분이 상상과 공상을 통한 판타지적 요소로 인해 발생하지만, 도리어 그런 신비스럽고 비자연적인 부분은 각박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새로운 자극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다.

패션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현상이자 타 문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대적 상황과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이념을 표출하는 반응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쟁점이 되는 문화적 경향이 패션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컬티즘(Occultism)이 하나의 문화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말 21세기 초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세기말적 분위기, 다양한 문화 현상을 급속히 퍼뜨릴 수 있는 발달된 온라인 통신망,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경제적 위기, 각박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 등이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현재까지 오컬트 문화 현상과 현대 패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적인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오컬티즘이 현대 패션에서는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내면적 의미를 도출해보

고자 하였다. 현대의 대중적 문화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어 접하기 쉬운 대중 매체는 현 시대의 문화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오컬티즘 현상 연구의 범위는 불특정 대중에게 공적, 간접적, 일방적으로 사회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대중 매체 중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현대 패션에 대한 연구 범위는 세기 말을 넘긴 2000년부터 현재 2013년까지의 패션 컬렉션(밀라노, 런던, 뉴욕, 파리)에서 추출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로는 첫째, 오컬티즘의 개념과 오컬티즘의 사회, 문화에서의 등장에 관해 고찰하고, 둘째, 대중 매체에 표현된 오컬티즘에 대해 연구한 후, 셋째, 현대 패션에 표현된 오컬티즘 현상과 그 내면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고찰을 비롯하여 현 시대에 정보와 경향들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신문 기사, 인터넷 전문 사이트 시각 자료를 통해 연구 진행 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오컬티즘의 개념과 근, 현대 사회와 문화에 스며들어 표현된 오컬티즘의 현상들에 대해 고찰하고,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중심의 대중 매체에 표현된 오컬티즘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 1. 오컬티즘의 개념과 등장

오컬트의 본래의 뜻은 ‘덮어 감추다’의 의미로, 오컬티즘은 ‘감추어진 것’, ‘비밀’ 등을 뜻하는 라틴어 ‘오컬투스(occultus)’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경험이나 사고, 논리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을 믿으며 마술과 마법, 연금술, 점성학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현상을 탐구하는 것을 가리킨다(시사상식사전, 2012). 그 외에도 오컬티즘은 아직 종교로서는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했지

만 주물 숭배, 마술, 악령숭배, 심령술 등 인간을 미혹하는 저급한 사교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이명주, 2010).

오컬티즘은 ‘숨겨진 지혜의 연구’라는 목표 아래 마술, 연금술, 새로운 감각 지각 능력 개발, 점성술, 강신술(spiritualism, 降神術), 수비학( numerology, 數祕學) 등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와 신념은 종교에 버금가는 많은 오컬티즘 단체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기독교나 유대교, 힌두교, 불교 및 이슬람교는 일반적으로 신비주의적, 초자연적 오컬티즘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비밀스럽게 활동하던 오컬티즘 단체들은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오컬티즘 사상의 서양의 비밀 단체들은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부흥하였으나, 17세기 이후 연금술, 수비학 등의 연구들이 계몽의 시대에 돌입과 함께 과학과 수학의 학문으로 발전 진행되면서 오컬티즘 연구는 경험 과학의 승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후 18세기 오컬티즘은 정통 종교 및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식과 담론의 수용 형태의 바깥쪽에서 단지 ‘신비로운 것’으로 정의 된 의미에 의해서만 보존되었다. 하지만 다시 1770년대 이후부터 미스터리에 대한 호기심과 중세의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유럽 특유의 낭만적인 기질은 합리주의 계몽주의에 대한 역반응을 가져오게 되며 다시금 신비주의의 부흥을 장려하게 되었다(Nicholas Goodrick-Clarke, 2008).

역사적 기록으로 내려오는 오컬티즘 단체는 장미십자회(薔薇十字會, Rosenkreuzer), 카발리스트(Qabbalist), 프리메이슨(freemason) 등의 소위 비밀 마법 단체들이다. 하지만 근, 현대에 들어오며 이전의 역사적 비밀단체가 공개되기도 하고 또는 출판물 등을 통해 비밀단체의 교설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 않게 그들의 자료를 구할 수는 있게 됨으로써 더 이상 비밀단체가 아닌 오컬트 단체, 혹은 오컬티즘 단체로 명명되고 있다. 이들로부터 만들어진 오컬티즘의 상징적 이미지들은 주로 기하학적인 암호와 도형으로 이루어진 마크, 해골, 산양의 뿔이 달린 사티로스(Saturos) 등이 있으며, 이 상징적 이미지들은 현대까지 오컬티즘 이미지로 이어지고 있다(그림 1).



<그림 1> 오컬트 이미지  
(출처: <http://www.google.it>)

비밀의 베일이 벗겨진 오컬티즘 단체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며 문화와 예술적인 부분으로 흡수되기 시작하였다. 1887년 창립되어 1970년대 까지 활동하였던 오컬티즘 단체인 황금 새벽회(Francis King, 1989)에서 활동하였던 오컬티스트 알레이스터 크로우리(Aleister Crowley)는 신비의식 마법사로서 2002년 BBC 설문 조사 당시 가장 위대한 영국인 일흔 세 번째 인물로도 뽑힌 바 있다(Tobias Churton, 2011). 1980-90년대 명성을 날린 헤비메탈 가수 오지 오스본(Ozzy Osbourne)은 당시 오컬티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었는데 마법과 사탄과의 소통 등을 언급하는 자극적이며 비밀스러운 가사의 ‘미스터 크로우리(Mr. Crowley)’라는 곡은 오컬티스트 알레이스터 크로우리의 유명세와 더불어 오지 오스본을 당대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크로우리의 오컬티즘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는 수많은 작가, 음악가, 영화 제작자들이 있는데(Richard Kaczynski, 2010), 악마적인 분장으로 유명한 가수 마릴린 맨슨(Marilyn Manson), 영화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 2005)의 원작가 앨런 무어(Alan Moore), 마약을 종교적 계시의 한 형태로 찬양하여 ‘엑스터시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티모시 리어리(Timothy Leary),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밴드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Jimmy Page)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Lawrence Sutin, 2000).

2008년 데뷔 이후 많은 이슈를 몰고 다녔고 2013년 미국의 저명 경제 잡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2위에 뽑힌 레이디 가가(Lady Gaga) 역시 오컬트 경향을 전적으로 수용한 제단과 제물, 피와 인육을 상징하는 것들을 무대에 올리며 지옥, 마귀, 악마 등을



<그림 2> 레이디 가가의 무대 퍼포먼스와 패션  
(출처: www.ladygaga.com)

송배하는 슬로건을 내세운 자극적 무대 퍼포먼스와 패션을 선보이며 전 세계 대중들에게 이슈화 되고 있다(그림2).

한편, 현대의 오컬티즘은 대중의 호기심을 시작으로 하나의 놀이의 행위로 표현되어왔다. 십여 년 전에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타로카드놀이, 타로 점치는 오컬트 분야의 점성술과 연금술 등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또 1980-90년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행해지며 유행하였던 혼령을 불러온다는 ‘분신사바’라는 놀이는 이후 2004년 동일한 제목의 오컬트 공포 영화로도 제작되어 개봉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영혼이나 초자연적인 현상과 접촉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오컬트 놀이들은 현재 더욱 발달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10-20대의 젊은 층을 주축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21세기 초반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해리포터’ 시리즈 등의 판타지 소설을 선두로, 판타지 영화와 온라인 게임, 텔레비전 드라마,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의 소재가 되기 시작한 오컬티즘 요소들은 현재의 오컬트 문화의 위치를 단순히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더욱 쉽게 접하고 대면할 수 있는 대중문화, 대중예술로 만들고 있다.

## 2. 대중 매체에 표현된 오컬티즘

### (1) 주술과 마법

대중매체에 등장한 오컬티즘의 시초는 단순

한 동화 이상의 매력을 가진 작품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 1900년 출간, 1939 영화 제작)’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이후, 21세기 브라운관에서는 마녀 가족과 말하는 고양이와 함께 사는 주인공의 에피소드인 ‘미녀 마법사 사브리나(Sabrina, the Teenage witch 2002 - 2002년 국내 방영)’, 흡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지닌 소녀 퇴마사의 에피소드인 ‘뱀파이어 해결사(Buffy the vampier slayer, 2002 - 2002년 국내 방영)’, 천사와 악마, 인간의 전쟁을 그린 초자연적 줄거리의 시리즈 ‘슈퍼네츄럴(Supernatural, 2005 - 현재 국내 방영 중)’ 등이 티브이 시리즈로 제작되어 오늘날의 주술과 마법의 대중매체 작품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공영방송 프로그램 역시 주술적이고 마법을 사용하는 판타지 드라마를 다수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오컬티즘 소재의 드라마들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영된 방송 중 역사적 광개토대왕과 허구의 사신을 접목시킨 ‘태왕사신기(MBC, 2007)’, 마법과 주술에 의해 몸이 바뀐다는 설정의 ‘시크릿 가든(SBS, 2010)’, 점술 능력을 가진 무녀와 왕을 소재화시킨 ‘해를 품은 달(MBC, 2012)’ 등의 판타지 드라마는 각각 35.7%, 35.2%, 42.2%의 높은 시청률을 올린바 있다.

스크린에서는 1998-2007년에 걸쳐 책으로 출판되고 영화로 제작된 ‘해리포터(총 8편, 2001-2011)’ 시리즈를 선두로 오늘날의 주술과 마법을 대중매체 속으로 끌어오고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개봉되며 엄청난 관객수를 기록했고, 뒤따라 제작 상영된 ‘반지의 제왕(3편, 2001-2003)’, ‘나니아 연대기(4편, 2005-2013)’등을 비롯한 판타지 장르의 부상으로도 나타났다.

마법과 주술에 관한 대중매체는 비현실적, 혹은 초현실적인 배경과 스토리를 가진 판타지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사회적 조류는 무거운 소재보다는 가볍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주술과 마법의 오컬티즘 소재가 등장하는 작품들은 무엇보다 시청자 또는 관객에게 무거운 현실에서 벗어난 상상의 재미를 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죽음과 공포

오컬티즘 영화의 장르는 흡혈귀, 유령, 악마론, 마녀술, 그리고 인간 신체를 훼손하는 신체 호러 등의 소재를 사용한 ‘비자연적인 공포’라는 범주 속에 포괄된다. 이는 단지 주술적이거나 마법이 아닌 인간의 공포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드라큘라의 직접적인 모델이 된 15세기 블라드 테페스(Vlad Tepes) 대공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주목되는 전형적인 오컬티즘의 소재이다.

오늘날 스크린에서의 흡혈귀의 모습은 흡혈귀와 퇴마사가 함께 등장하는 ‘반헬싱(Van Helsing, 2004)’과 ‘링컨:뱀파이어 헌터(Abraham Lincoln: Vampire Hunter, 2012)’, 흡혈귀와 인간의 사랑을 소재화 한 ‘렛미인(Lat Den Ratte Komma In, Let The Right One In, 2008)’, ‘트와일라잇(Twilight, 2008)’ 시리즈, ‘박쥐(2009)’가 있으며, 이 중 ‘트와일라잇’은 엄청난 흥행으로 총 4편의 시리즈로 제작된 바 있다. 21세기 흡혈귀 오컬티즘 영화는 대부분 인간과의 공존 관계 또는 인간보다 나약한 흡혈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하고 인간을 해하던 20세기의 흡혈귀 공포 영화와의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신체호러를 소재로 한 고어 영화의 사례들도 다수 있는데, 배낭 여행족이 납치되어 살해당하는 영화 ‘호스텔(Hostel, 2005)’은 십여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배낭여행자들을 소재로, 비현실적인 공포물이지만 실제 있을법한 스토리로 3편까지 제작, 개봉되었다. 또한 신체 훼손, 절단 등의 장면들로 가득 찬 내용의 영화 ‘쏘우(Saw, 2004)’는 여러 해에 걸쳐 여섯 편 이상의 작품으로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다수의 골수팬 층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개봉작인 ‘악마를 보았다’ 역시 복수를 함에 있어 잔인한 신체호러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죽음과 공포의 특성을 가진 현대 21세기의 오컬티즘 영화는 종전의 단순한 공포 영화와는 달리 현대인의 감성과 현대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비판거리들을 내포하면서 이전의 몇몇의 마니아층이 아닌 대중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흥행과 함께 관객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오락문화의 한 형태로 즐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대의 오컬티즘이 그 근본적인 개념보다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하나의 놀이거리나 오락으로써 대중문화의 위치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 III. 현대 패션에 표현된 오컬티즘

### 1. 초(超)인류적 유기체

현대 패션에 표현된 오컬티즘의 첫 번째 특성인 초인류적 유기체는 인간의 몸의 형태에 대한 변형 및 왜곡이다. 이 특성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몸 형태를 무시하고, 인간과 제3의 생명 섞인 잡종의 형태, 비자연적인 판타지속의 유기체로 변형 시킨 패션의 오컬티즘 사례이다.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그림 3),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그림 4), 썸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그림 5)의 작품에서는 신체의 부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듯 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그림 6)은 맥퀸 스스로가 밝힌바 있듯이 마치 비늘을 덮어쓴 듯 보이는 수중인간의 형상, 혹은 거대한 검은 새의 형상이나 산양의 뿔을 형상화한 헤드 드레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가레스 푸(Gareth Pugh) 역시 인간 신체와는 동떨어진 작품들을 제작하였다(그림 7).

패션에서 드러나는 초인류적 유기체의 오컬티즘 분류는 접하는 이들로 하여금 극적인 당혹감을 주거나, 비자연적인 요소로 인한 신비스러움을 통해, 패션이기 때문에 표현 가능한 인간의 몸에 대한 오컬티즘 판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색채감 없는 무채색의 사용과 함께 당혹감과 신비성이 미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유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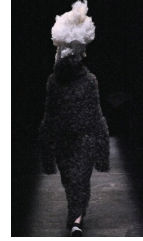
현대 패션에 표현된 오컬티즘 두 번째 분류 유령의 특성은 생명이 없는 모습, 흡혈귀, 유령, 죽음의 신 같은 음침하고 창백한 이미지로 드러



<그림 3>Junya Watanabe  
(f/w 03-04)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그림 4>Martin Margiela  
(s/s 09)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그림 5> Comme Des Garçons  
(s/s 09)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그림 6> Alexander McQueen(s/s 10, f/w 09)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그림 7> Gareth Pugh(s/s 06, s/s 07)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나며 고딕적인 요소들이 첨가되면서 기이하고 괴기스러움으로 표현되고 있다. 어둡고 음침하며 창백한 모습의 패션 연출은 마치 혼령이나 사신(死神)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서 드러나는 흡혈귀나 중세 고딕적인 요소들은 생명이 없는 죽음과 관련된 모습으로 무겁고 위압감을 주는 오컬트즘의 그로테스크한 공포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피빛 드레스에 전형적인 고스트 페이스(Ghost face) 메이크업을 연출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그림 8), 높은 옷깃과 중세 스타일의 긴 케이프 코트를 겹겹 감고 붉은 빛으로 사용하여 드라큐라를 연상시키는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그림 9), 마치 죽은 자 또는 사신의 모습을 형상화 한

가레스 퓨의 작품(그림 10), 기괴하고 고딕적인 형상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작품(그림 11), 어둡고 음울한 검은 웨딩드레스를 연출한 지방시(Givenchy)의 작품(그림 12) 등이 사례로 분석되었다.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신봉하고 따르는 오컬트 문화가 현대의 하나의 유행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현대인이 느끼는 진정한 현 사회의 공포는 흡혈귀나 소설 속에 나오는 유령이나 괴물은 아닐 것이다. 명칭만 세계대전이 아닐 뿐 끊임없이 계속되는 크고 작은 전쟁과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범죄들, 그리고 또 다시 치러지는 그 테러와 범죄와의 전쟁들은 유령이나 흡혈귀보다 더한 괴기스럽



<그림 8> John Galliano(s/s06)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그림 9> Viktor&Rolf(a/w01)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그림 10> Gareth Pugh(s/s08, f/w08-09, f/w13-14)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고 극한 공포를 현대인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림 11> Christian Dior(f/w 06-07)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그림 12> Givenchy(f/w 06-07)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유령의 모습 같은 어두운 공포감을 주는 패션의 오컬티즘 표현은 오히려 고전적인 공포의 소재나 음침한 색상, 그로테스트하고 기괴한 인간 모습의 표현을 통해 현실의 죽음과 공포에 대한 현상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미적 특성으로는 그로테스트한 공포감과 우울함, 생명 없음이 표현되고 있다.

### 3. 네오 마카브레(Neo-Macabre)

마카브레는 중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허구적 관념 대신 실제의 죽음, 즉 시체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된 개념으로, 여기서의 죽음 또는 시체는 해골의 형상을 한 죽음으로 이끄는 사자(使者)의 모습이다. 당시 마카브레 개념이 퍼지면서 삶의 덧없음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에 대한 교훈을 함축한 그림인 ‘춤추는 죽음’(그림 13)이 유행하게 된다. 이 그림에서 춤을 추고 있는 ‘죽음’의 형상은 해골로 표현되고 있으며, 삶의 끝을 상징하는 해골은 현재까지의 21세기 패션에서 오컬티즘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티프로 등장하고 있다.

흉부에 해골을 그려 넣은 존 갈리아노(그림 14), 레이스를 이용해 해골을 만든 클레멘츠 리베리오(Clements Ribeiro)(그림 15), 어깨와 팔, 토르소에 해골을 이용한 육감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그림 16), 작품 위에 직접 해골을 그려 넣은 제이미 스콧(Jamie Scott)(그림 17)과 장 샤를르 데 카스텔바작(Jean Charlrs de Castelbajac)(그림 18) 등은 자신들의 작품을 적나라한 해골의 형상을 사용하여 선보이고 있다. 또한 맥퀸은 실제 춤추는 죽음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산 자의 다리를 붙잡고 저승으로 끌어가려 듯 보이는 해골을 사용하여 자신의 컬렉션 무대를 연출하기도 하였다(그림 19).

특히 맥퀸은 고딕적인 분위기와 유럽의 암흑 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종종 발표하였는데 맥퀸의 디자인에 다양한 형태의 모티프로 작용한 해골 형상은 죽음의 상징이자 악함의 상징이기도 한 해골을 현대의 패셔너블한 오브제로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데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대중적으로 전파된 오컬티즘 패션의 대표적 모티프로 패션 메거진의 화보나 패션 사진 작가들이 즐겨 찾는 소재가 되고 있다(그림 20, 21).

실제 인간이 죽어서 썩은 후 나타나는 해골의 형상은 현대에는 하나의 대중적인 패션 자체로 수용되고 있는 것의 내면적 의미는 생명력이 짧은 패션의 속성으로 인한 비탄한 심정의 표현이자 삶의 끝에 대한 겸허한 자세,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내면적 호기심의 표현에서 시작된 것이라 해석 할 수 있겠다. 네오 마카브레에서 드러난 미적 특성은 삶의 덧없음, 죽음의 회화, 삶의 끝에 대한 호기심의 표현이 도출되었다.

<표 1>은 현대패션에 표현된 오컬티즘의 연구를 통해 드러난 각 분류와 표현특징, 그에 따른 내면적 의미와 미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 IV. 결론

현대의 오컬티즘은 그 원래의 개념과는 상관 없이 현실과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것이나 마법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과 추종으



<그림 13> 춤추는 죽음  
(출처: <http://www.google.it/img>)



<그림 14> John Galiano(f/w 00-01)  
(출처: Goth (p.83) Gavin Baddeley. 2010, London:Plexus publishing limited)



<그림 15> Clements Ribeiro  
(f/w 05-06)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그림 16>Jean Paul Gaultier  
(f/w10-11)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그림 17> Jamie Scott  
(s/s11)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그림 18>Jean Charlrs de Castelbajac(f/w 08-09, f/w 11-12)  
(출처: <http://www.style.it/moda/sfilate>)



<그림 19> Alexander Mcqueen(f/w 01-02)  
(출처: Goth (p.82) Gavin Baddeley. 2010, London:Plexus publishing limited)



<그림 20>BAZAAR (2009. 10)  
'Tim Burton's Tricks & Treats'  
(출처: <http://www.harpersbazaar.com>)



<그림 21> Alexander Mcqueen. skull clutch & scarf  
(출처: [www.alexandermcqueen.com](http://www.alexandermcqueen.com))

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현대의 오컬티즘이 현대인의 하나의 오락거리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21세기의 오컬티즘의 유행 현상은 현대인들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불안함과 공허함을 대신하는 방편으로써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신비스러움을 찾거나 초자연적인 요술이나 주술, 심령, 점성 등에 의존함으로써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술과 영혼의 존재 등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현상을 접목하는 오컬티즘 경향의

문화적 감성은 현실도피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주가를 높이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적 변성은 사회가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징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윤예진, 2012).

패션에 표현된 오컬티즘 사례 중 음침하고 악마 같은 형상의 초자연적, 초인류적인 모습의 표현들은 현대 사회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명명한 규범들과 금기를 거역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이나 욕구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변혁의 시대의 도래를 원하는 표현일 것이다. 또한 해골을 모티브로 죽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드러낸 패션의 오컬티즘은 현실적으로는 체험 불가능한, 패션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워버린 하나의 고딕적 판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의 삶의 끝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드러내며, 삶이 끝난 후의 세계에 대한 인간 내면의 근본적 호기심의



<표 1> 현대 패션에 표현된 오컬티즘

분류	표현 특징	내면적 의미	미적 특성	사례(이미지)
초(超)인류적 유기체	몸 형태 무시, 잡종의 형태, 판타지	극적 당혹감, 신비스러움을 통한 비현실적 판타지의 욕구.	당혹감, 신비성	
유령	생명없는 모습, 유령, 사자(死神), 흡혈귀, 그로테스크	현대사회의 규범과 금기를 거역하고자하는 대중의 욕망 상징.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고대하는 마음의 역설적인 표현.	그로테스크, 공포감, 우울함, 생명 없음	
네오 마카브레	저승으로 이끄는 사자(使者), 해골	생명력이 짧은 패션의 속성으로 인한 비탄한 심정의 표현.  삶의 끝에 대한 겸허한 자세. 사후 세계에 대한 인간 내면적 호기심의 표현.	삶의 덧없음, 죽음의 희화화, 사후의 호기심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요즈음, 대중 매체를 비롯하여 현대 사회 안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는 ‘힐링(healing)’일 것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줄 길 바라고 상처를 치유받길 원하고 있다. 21세기 현재, 현대인들의 심리는 끊임없는 테러와의 전쟁, 각종 범죄, 세계적인 불경기,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 기후, 신종 질환,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적응,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자아 분열 및 정체성 상실 등으로 피곤하고 상처 받고 있다. 이런 현대인의 환경은 결국 인간의 내면적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사후 세계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의 관심들이 오컬티즘의 문화적 유행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패션은 단지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패션 역시 하나의 문화이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아이콘으로서 동시대의 사회상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적 모습을 어떠한 기록보다도 명확하게 남기

고 있다. 현사회의 오컬티즘 경향과 더불어 패션에서의 오컬티즘의 표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에 대한 위로와 치유의 기대로써 수용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컬렉션에 한정된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것이 한계점이긴 하나, 아직까지 진행된 연구가 미비한 동시대 오컬티즘의 유행 문화 현상과 패션의 흐름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하이패션인 컬렉션 이외에 패션분야에서 나타난 오컬티즘의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총체적 관점에서 오컬티즘 패션의 연구로 발전 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다카히라 나루미. (2000). *소환사* (신은진 역). 파주: 들녘.  
 디지털뉴스부. (2013. 7. 1.).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위 오프라 윈프리 탈환, 레이디가가, 스피버그

- 2, 3위. *경인일보*. 자료검색일 2013. 7. 1, 자료 출처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816>
- 로렌스 A. 리켈스. (2009). *뱀파이어 강의* (정진영 역). 서울: 루비박스09.
- 수잔 헤이워드. (1997). *영화사전 이론과 비평* (이영기 역). 서울: 한나래.95.
- 신영호. (2012). *오컬트 대백과사전*. 서울: 인프레스
- 윤예진. (2012). *현대 패션에 표현된 추의 미학*.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주. (2010). *오컬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포맷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전숙, 김용숙, 이효진, 염혜정. (2003). *현대인의 패션*. 파주: 교문사.
- 이한우. (2009). *영화 속 오컬트 X-파일*. 서울: 나무발전소
- 자비네 되링만도이펠. (2008). *오컬티즘* (김희상 역). 서울: 갤리온.
- 장화진. (2011). *신세계 질서의 비밀*. 경기: 터치북스
- 진중권. (2008). *춤추는 죽음*. 서울: 세종서적.
- 폴 제퍼스. (2007). *프리메이슨* (이상원 역). 서울: 황소자리 출판사.
-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시사상식사전*. 서울: 도서출판 박문각.
- Francis King. (1989). *Modern Ritual Magic: The Rise of Western Occultism*. New York: Macmillan Company.
- Lawrence Sutin. (2000). *Do What Thou Wilt: A Life of Aleister Crowley*. New York: St Martin's Press.
- Nicholas Goodrick-Clarke. (2008). *The western esoteric tradi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 Kaczynski. (2010). *Perdurabo: The Life of Aleister Crowley* (second edition). California Berkeley: North Atlantic Books.
- Tobias Churton. (2011). *Aleister Crowley: The Biography*. London: Watkins Books.